

<洪廷命 誌石>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tone Epitaph of Hong Jeong-Myeong

朴 文 烈(Moon-Year Park)*

<목 차>

I. 緒 論	5. 官職
II. 誌石의 傳來狀況	6. 生沒과 葬禮
III.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7. 後孫의 系譜
IV. 誌石文의 內容	8. 銘文
1. 標題	9. 誌石文의 撰者
2. 姓과 諱	10. 誌石文의 書者
3. 先祖의 系譜	V. 誌石의 製作者와 製作時期
4. 性品과 行蹟	VI. 結 論

초 록

본고는 이득신에 의하여 찬술되고 강세황에 의하여 서사된 홍정명의 지석에 관한 금석학적 연구이다. 지석의 재질은 오석이며, 크기는 세로 27.8~28.2cm 가로 20.3~20.7cm 두께 2.0~3.6cm 내외이다. 지석문은 8면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주로 홍정명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

주제어 : 지석, 홍정명, 이득신, 강세황, 금석학, 해서체, 음각

Abstract

This study is a physical and textual analysis on an epigraph, the Stone Epitaph of Hong Jeong-Myeong(홍정명 지석). This was edited by Lee Deuk-Sin and transcribed by Gang Se-Hwang. On the view of physical point, the Stone Epitaph is made of black stone and its size is 27.8~28.2cm high, 20.3~20.7cm wide, and 2.0~3.6cm thick. On the view of textual point, the text of Stone Epitaph is about the career of Hong Jeong-Myeong, and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is by depressed engraving on 8 black stone plane.

Key Words : epigraphy, memorial stone, stone epitaph, Hong Jeong-Myeong, Lee Deuk-Sin, Gang Se-Hwang, the printed style of writing, depressed engraving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parkmoon@chongju.ac.kr)
· 접수일 : 2004. 2. 22 · 최초심사일 : 2004. 3. 7 · 최종심사일 : 2004. 3. 11

I. 緒論

誌石¹⁾은 卒去한 사람의 人事項, 墓의 위치와 坐向 등을 기록하여 묘에 함께 묻은 板石이나 陶板을 말한다. 따라서 지석에는 本貫, 謂,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가족관계, 묘의 위치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므로 同 時代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金石學 자료이다.

지석에 기록된 문장을 흔히 誌文²⁾ 또는 墓誌³⁾라고도 일컫고 있으나, 이는 지석에 실린 독특한 문체의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석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誌石은 구체적으로 墓誌石을 지칭하며, 그것이 형태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誌石板’으로, 誌文의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誌石文’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洪廷命 誌石>에 기록된 지석문은 홍정명(1692~1748)의 외손인 문신 李得臣(1742~1802)에 의하여 撰述되고 지석문의 書寫는 당대의 저명한 화가요 서예가였던 豹庵 姜世晃(1712~1791)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洪廷命 誌石>에 기록된 지석문의 被藏者인 홍정명에 관하여는 조선시대 후기인 英祖와 正朝年間의 문신이며 학자로 만 알려져 있을 뿐, 달리 크게 알려지거나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본고는 <洪廷命 誌石>의 현상과 지석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정리하여 金石學 및 홍정명 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誌石의 傳來狀況

현재 <洪廷命 誌石>은 忠北 鎮川郡 廣惠院面 實院里에 거주하며 홍정명의 10대손인 洪範錫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洪廷命 誌石>은 전래에 대하여는 後孫들에 의해 代代孫孫 전해져 내려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자세한 전래상황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 관리자 홍범석과 宗

- 1) 誌石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板石 또는 陶版으로 구체적으로는 墓誌石이라고도 하나, 문화재명으로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誌石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2) 誌文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날, 행적, 무덤의 위치와 坐向, 따위를 적은 글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墓誌는 죽은 사람의 이름,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로 砂器版이나 돌에 새겨 무덤 옆에 둘거나 관이나 壺에 직접 새기기도 한다. 墓誌 · 宅兆라고도 한다.

중의 인사들에 의하면, 忠北 鎮川郡 廣惠院面에 소재한 南陽 洪氏 宗中의 齋室 마루바닥 아래의 땅속에서 발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III.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

<洪廷命 誌石>의 지석판은 총 4매 8면이다.

지석판의 재질은 精選된 烏石이며, 한번의 판 작업과 여러 번의 물갈이로 이루어진 듯하다. 지석판의 크기는 길이 27.8~28.2cm 너비 20.3~20.7cm 두께 2.0~3.6cm 내외로 지석판마다 크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1)

內容 面 數	圖 版	原 文	特 徵
第 1 面		<p>公諱廷命字士欽姓洪氏系出南陽始祖諱/悅佐麗祖開國官太師世襲圭組至 本朝/執義諱演 世祖朝碎佛像以直名五傳至/西湖公諱湜官吏曹參判 贈領議政卽公/五世祖也高祖諱友敬尙貞仁翁主封唐原/尉光海廢 母后抗志不參庭請曾祖諱盈/漢城庶尹 贈司憲府執義祖諱箕敍成均/生員 贈吏曹參議考諱潾篤行厚德爲士/友推重蔭仕平壤尹以壽陞通政妣驪興/閔氏監察晦女右議政箕五世孫用公原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0 cm 가로 20.3 cm 행자 : 10행17자 격자 : 6자 자수 : 164자 서체 : 편서체 새김 : 음각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오른쪽 상단 약간 손상 판면 : 양호 보존 : 양호
側 面		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께 3.6 cm 좌상우 약간 손상
第 2 面		<p>勞考 贈吏曹參判妣從封貞夫人始參判/公晚得公甚愛之教督且勤公研精經史髫/亂已著聲譽乙未登上庠庚子參判公疾篤/公刲臂血進藥及喪毀幾滅性鄭都尉載峯/素昧公數致問輒稱孝哉洪某乙巳擢 庭/試丙科時當路者沮闊異已甚力公奉大夫/人歸鎮川先墓下丁未隸槐院不就間攝史/入堂后戊申丁憂癸丑爲金泉道察訪纔經/大無燭貢俾復業流逋悉還凋弊盡祛乙卯/陞成均典籍移禮兵曹佐郎正郎出爲江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0 cm 가로 20.3 cm 행자 : 10행17자 격자 : 2자 자수 : 168자 서체 : 편서체 새김 : 음각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오른쪽 상단 약간 손상 판면 : 다소龜裂 보존 : 양호

<表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2)

內容 面 數	圖 版	原 文	特 徵
第 3 面		<p>都事丙辰爲司憲府持平改公洪都事不赴/ 戊午長髮缺鬢惡邑歲又饑 上命別簡三/ 易望乃授公馳傳往彈心調賑闊境賴無死/ 亡土俗椎陋昧學公捐廩課試縣中子弟居/ 業者若脫鱗介衣文章翌年解歸兼臺檢湖/ 西田庚申出平安都事辛酉罷冬拜正言 / 上親臨覆囚不出 特補南海縣縣民採魚/ 溺死者四十餘人公惻然曰豈忍使民餌魚/ 募善溺者悉拯斂葬浦祭以慰之明年以持平 召還甲子陞掌令乙丑爲軍資正移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0 cm 가로 20.6 cm 행자 : 10行 17字 구애자 : 4字 자수 : 166字 서체 :楷書體 새김 : 익각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左上 약간 破損 판면 : 良好 보존 : 良好
側 面		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께 3.2 cm 左上 약간 破損
第 4 面		<p>納 上有事 太廟公方宿齋又拜掌令有/ 同僚姻嫌 召不進配高原後因大臣陳白/ 有還丁卯敍復獻納至戊辰爲司諫執義者/ 屢七月二日考終于皇華坊舊第距生年壬/ 申二月二日壽五十七厝于先壇庚辰移葬/ 參判公墓前坐辛之阡從遺命也公風儀秀/ 雅性度峻整事二人終身慕每當諱辰哀痛/ 如袒括謹致齋親視饌任事婢使亦令沐浴/ 更衣極其誠虔家有虧疫或請廢祀則曰未/ 有享先而獲禍者四時上塚至老必親時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0 cm 가로 20.6 cm 행자 : 10行 17字 구애자 : 3字 자수 : 167字 서체 :楷書體 새김 : 익각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良好 판면 : 良好 보존 : 良好
第 5 面		<p>輒悲楚竟夕家人感之不忍設酒食事諸姊/ 友篤日往候起居與人交終身無相負立朝/ 伉厲不脂韋洪相致中同宗也責其不參訪/ 但遜謝而已鄰有時宰數致意相見終不跡/ 其門嘗論度支長非人望數三名士狎游權/ 門物論快之居家斬斬如朝儀婦女童幼坐/ 立有常處族人無行者屢侵公田業公曰彼/ 窮而然輒以券予之歿前數月季姊病甚公/ 躬視藥畫夜既喪哀憊動人往哭朔尊急中/ 署宿疾兼劇翌日竟不起此可以槩公孝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7.8 cm 가로 20.7 cm 행자 : 10行 17字 구애자 : 익음 자수 : 170字 서체 :楷書體 새김 : 익각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良好 판면 : 良好 보존 : 良好
側 面		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께 2.9 cm 左上右下 약간 破損

<表 1> 誌石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3)

內容 面 數	圖 版	原 文	特 徵
第 6 面		<p>之終始也配淑人全州崔氏吏曹判書天健/六世孫父通德郎守溫淑人生纔十日母夫/人歿自學語凡有疾痛顛仆一未嘗呼母人/問之輒哽咽不忍對及長聰曉義理言動有/則十九歲歸公事舅姑以敬虔姊妹以悌僕/隸之賤不以疾言遽色加之巫祝不入門奉/祭接賓賜勉有無未嘗對君子示婁色生於/辛未十月二十八日歿於己巳八月十四日/享年五十九始權葬庚辰附公墓生三男三/女男不育取從父弟廷禹子鍾爲嗣縣監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7.8 cm 가로 20.7 cm 행자 : 10行17字 구애자 : 없음 자수 : 170字 서체 :楷書體 새김 : 陰刻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良好 판면 : 良好 보존 : 良好
第 7 面		<p>長歸先親姓李諱時德次適任__郡守次適/金尚義鍵娶李益馨女有一子三女子百善/娶郡守任塔女女長適南履懿次適權尚挺/次適任希夏先親有一子一女子得臣娶趙/漢慶女參判女適金啓淳正郎公內篤實行/外著方嚴釋褐三十年宦途連蹇秉公議者/至陳章訟屈公不以得失嬰心有時榮羸馬/過訪竊交寒族劇飲敘歡輸寫靡間視世之/藻飾文辭掩蠻言貌同流合汙媚俗規利者/不啻若燕越其不遇於世宜矣嗚呼得臣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2 cm 가로 20.7 cm 행자 : 10行17字 구애자 : 없음 자수 : 170字 서체 :楷書體 새김 : 陰刻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右上下 약간破損 판면 : 다소 龜裂 보존 : 良好
側 面		四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께 28.6 cm 좌우상하 약간 破損
第 8 面		<p>襪裸失怙受公保抱鞠養如昨日事今於三/十年後漬淚而誌公幽壙顧有所不敢而亦/豈公所期也謹銘曰孝友焉純篤言行焉正/直君子之筋也德鉅而嗣絕位卑而施薄天/理之嗇也可使諭者潔可使柔者確後人之/式也有甥狀其蹟有孫詔諸石辭不敢飾也/外孫嘉善大夫洪忠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完山李得臣撰 / 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晉陽姜世晃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 28.2 cm 가로 20.7 cm 행자 : 10行17字 구애자 : 없음 자수 : 170字 서체 :楷書體 새김 : 陰刻 재질 : 精選된 烏石 처리 : 물갈이 처리 현상 : 左上下 약간破損 판면 : 良好 보존 : 良好

지석문은 물갈이로 잘 다듬어진 지석판의 양면에 陰刻되어 있다. 각 판의 지석문은 楷書體로 10行 17字로 새겨져 있다. 지석문의 분량은 전체 80항에 25자가 隔字되어 도합 1,335자이다.

IV. 誌石文의 内容

본 지석의 지석문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동시대의 전형적인 기술방식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 지석문은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10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석문의 분량은 18·19세기에 이르러 武官職에까지 지석의 사용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길고도 충분한 편에 속한다.

1. 標題

지석문의 標題의 내용은 대개 品階, 官職, 本貫, 姓, 墓誌銘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때로는 ‘묘지명’이라는 명칭 대신에 ‘墓誌’, ‘墓銘’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에 덧붙여 흑墓의 坐向이 붙여지기도 한다.

본 지석에는 현전하는 자료만으로 볼 때 開石文이 없다. 원래에는 別枚의 개석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본 자료에서 개석문이나 이를 대신하는 아무런 글도 없이 바로 “公諱廷命字士欽姓洪氏系出南陽……” 등⁴⁾의 본문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지석의 개석문을 굳이 복원한다면 “通訓大夫行司諫院司諫南陽洪公諱廷命誌文”이 될 것이다.

2. 姓과 謂

본 지석문에는 公의 姓, 謂 本貫 등이 소개되어 있다.⁵⁾

본 지석문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공의 姓은 洪氏이고 휘는 廷命이며, 字는 士欽이고 본貫은 南陽임을 알 수 있다.

4)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1面.
公諱廷命字士欽姓洪氏系出南陽

5)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1面.
公諱廷命字士欽姓洪氏系出南陽

3. 先祖의 系譜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公의 先祖의 系譜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 지석문에 나타나는 바와 「南陽洪氏湖隱公派譜」를 중심으로 公의 家系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南陽洪氏 湖隱公派 家系

洪殷悅(始祖, 太師公, 太師公派)	—東周(太府卿 太2)—毅(僕射公 太3)—灝(詹事公 太4)—德升(監事公 太5)
—灌(忠平公, 太6)—至柔(尚書公, 太7)—源中(刑書公, 太8)—斯胤(副事公, 太9)—縉(學士公, 太10)—奎(匡定公, 太11)—戎(莊簡公, 太12)—澍(南陽君, 太13)—徵(唐城君, 太14)—尚博(佐郎進士, 太15)—陟(中軍司正公, 太16)—演(湖隱公, 太17, 湖隱公派)	—俊(承旨公, 太18, 湖2)—紹宗(大司憲, 太19, 湖3)—闡(承旨公, 太20, 湖4)—汝謙(參判公, 太21, 湖5)—湜(參判公, 太22, 湖6)—友敬(唐原尉, 太23, 湖7)—__ (庶尹公, 太24, 湖8)—箕敘(生員公, 太25, 湖9)—濬(參判公, 太26, 湖10)—廷命(執義公, 太27, 湖11)—捷(縣監公, 太28, 湖12)—百善(太29, 湖13)—義容(太30, 湖4)—載奮(太31, 湖5)—升鉉(太32, 湖6)—源臣(太33, 湖7)—翼杓(太34, 湖8)
—性元(太35, 湖19)—彥基(太36, 湖20)—	—(湖20)—禎錫(太37, 湖21)—賢澤(太38, 湖22)—柱彊(太39, 湖23)
—(湖20)—範錫(太37, 湖21)—誠澤(太38, 湖22)—柱吉(太39, 湖23)	

始祖인 고려시대의 洪悅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演’, 5세조인 ‘湜’, 고조 ‘友敬’, 증조 ‘__’, 조고 ‘箕敘’, 고 ‘濟’에 이르기까지 7 대조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고 또한 公의 모친의 가계에 관해서도 다소 언급⁶⁾되어 있다.

시조 洪悅⁷⁾의 경우 고려가 처음으로 개국하는 것을 보필하여 관직이 太師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圭組를 세습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公의 10대 선조인 집의 ‘演’은 世祖朝에 불상을 깨뜨려 부숴서 이름을 드날렸으며, 5대를 내려와 公의 5대 선조인 西湖公 ‘湜’⁸⁾은 관직이 이조참판이었고 영의정에贈位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6)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1面 ~第2面.

始祖諱悅 佐麗祖開國 官太師 世襲圭組 至本朝 執義諱演 世祖朝碎佛像以直名 五傳至西湖公諱湜 官吏曹參判贈領議政 卽公五世祖也 高祖諱友敬 尚貞仁翁主 封唐原尉 光海廢母后 抗志不參庭請 曾祖諱 __ 漢城庶尹贈司憲府執義 祖諱箕敘 成均生員贈吏曹參議 考諱濟 篤行厚德 爲士友推重 蔭仕平壤庶尹 以壽陞通政 姮驪興閔氏 監察晦女 右議政第五世孫 用公原從勞考贈吏曹參判 姮從封貞夫人.

7) 始祖의 諱에 있어 <洪廷命 誌石>에는 ‘悅’로 기록되어 있으나, 「南陽洪氏湖隱公派譜」에는 ‘殷悅’로 기록되어 있다.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上卷, p.1>

8) 조선의 文臣으로 1559(명종 14)년에 출생하여 1610(광해군 2)년에 卒去하였다. 자는 仲清, 호는 西湖, 본관은 南陽, 縣監 汝兼의 아들이었다. 1588년 別試文科 丙科로 급제하여 檢閱이 되고 1599년 正言·典籍·持平을 역임하고 이듬해 修撰·直講, 1602년 副修撰·執義를 역임하였으며, 다음해 應敎·司諫을 역임하였다. 1604년 典翰·直提學·右副承旨를 거쳐 이듬해 都承旨 大司憲에 오르고 1606년 吏曹參判이 되었으며, 당시 小北에 속하여 大北의 탄압에 앞장섰다. 1608년 광해군의 즉위로 江津

공의 고조인 ‘友敬’⁹⁾은 貞仁翁主에게 장가를 들어 唐原尉에 封爵되었으나, 光海君이 廢母한 이후로는 抗志하여 庭請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의 증조 ‘’은 漢城府 庶尹을 지낸 뒤 司憲府 執義가 贈位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공의 조고인 ‘箕敍’는 성균관 생원에 이조참의가 증위되었으며, 공의 부친인 ‘潾은 篤行과 厚德으로 土友들의 推重이 되고 薦仕로 平壤府 庶尹이 되었으며 耆老로 通政에 승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의 모친은 驪興 閔氏로 감찰 ‘晦’의 딸이며 우의정 ‘箕’¹⁰⁾의 5세 손녀였으며, 공이 原從한 노고로 擢用됨으로써 아버지가 이조참판에 증위되고 어머니도 따라서 貞夫人에 封爵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본 지석의 지석문은 현재 문중에 전하는 「南陽洪氏湖隱公派譜」¹¹⁾와 비교할 때, 지석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官職과 品階를 위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 先代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性品과 行蹟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공의 性品과 行蹟에 관한 사항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¹²⁾되어 있다.

에 유배되어 配所에서卒去했다. 글씨를 잘 썼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伸冤되고 領議政에 追贈되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1044.>

9) 조선 宣祖의 사위로 1590(선조 23)년에 출생하여 1625(인조 3)년에卒去하였다. 자는 敬夫, 본관은 南陽, 參判 混의 아들이었다. 1603년 선조의 딸 貞仁翁主와 결혼, 唐城尉에 封爵되고 누진하여 奉憲大夫가 되었다. 翁主가 혼인하면 자택을 하사하는 예가 있었는데, 友敬은 이를 굳이 사양하였다. 1618년에 廢母論이 일어나자 울분하여 침식을 폐하고 庭請에 나아가지 않고 李爾瞻 韓續男 등의 음모를 상소했다가 부자가 함께 削職을 당하고 유배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復官 되고 陞資하였으나 항상 우울한 심정으로 집에서 國史를 즐기다卒去하였다. 紓祿大夫에 追贈되었으며 諡號는 貞簡이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1046.>

10) 조선의 文臣으로 1504(연산군 10)년에 출생하여 1568(선조 원)년에卒去하였다. 자는 景說 호는 觀物齋·好學齋, 본관은 驪興, 縣令 世璫의 아들이며 金安國의 門人이었다. 1539년 別試文科丙科로 급제하여 이듬해 弘文館著作이 되고 軍器寺僉正으로 春秋館編修官을 겸직하여 「中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副校理·舍人 등을 거쳐 이듬해 掌令으로 대신 尹仁鏡·李芑·鄭順朋 등의 전횡을 논착하고, 1547년 司導寺僉正에 좌천 軍器寺正을 거쳐 이듬해 廉尚道暗行御史로 나가 尚州에서의 가혹한 軍布 정수를 上奏하여 시정케 하였다. 弘文館直提學, 同副承旨, 左副承旨, 工曹·兵曹의 참의 등을 지내고, 1551년 大司成에 올랐다. 이듬해 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555년 清洪道觀察使, 1558년 大司諫·龍驤衛大護軍, 이듬해 大司憲·大司成을 역임 1563(선조 10)년 李樸의 일당을 탄핵하여 모두 유배케 하였다. 이듬해 副提學, 吏曹와 禮曹의 參判을 거쳐 漢城府判尹, 1566년 刑曹·吏曹의 判書, 다음해 知中樞府事·右參贊을 역임, 1568년 右議政에 올랐다. 학자로 이름이 높았고 문장에 능했다. 諡號는 文景이다. 저서로는 「石潭野史」, 「大學圖」 등이 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p.247~248.>

11)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12)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2面, 第4面~第5面.

공의 부친이 느지막이 공을 염아 극진한 사랑으로 교육하고 또한 부지런하게 하니 공은 경史를 정밀히 궁구하여 어린이 때에 이미 名聲이 두드러져 을미(1715)년에 大學에 들어갔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후 경자(1720)년에 공의 부친 參判公이 위독해지자 공은 활을 베어 그 피를 약으로 진상하였고 죽을 당하자 너무 哀悼하여 병이 들 정도에 이르렀으며, 都尉 鄭載峴¹³⁾이 평소에 눈이 어두워 공이 자주 문안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洪 某는 진정 효자로다!’라고 칭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한결같이 공이 어려서부터 공부에 정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예의가 있는 성품의 소유자임을 기술한 것이다.

그 뒤에도 공의 風儀는 秀雅하고 성품과 도량은 峻整하였으며 종신토록 兩親을 위해 봉사하고 장례를 치를 때는 至誠으로 하였다. 또한, 致齋는 친히 주관하여 일을 맡은 여종(婢)들에게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성의와 경건을 다하였다. 집안에 전염병이 있어 어쩌다 제사를 거를 것을 청하면 ‘享先해서 禍를 입는 사람은 결코 없다!’고 하면서 四時로 묘소에 오르고, 늙어서도 반드시 時日과 같이하며 밤새도록 楚囚와 같이 비통해 하니, 집안사람들이 이에 감동하였다.

공은 起居와 親交에 있어서도 서로 부담을 주지 않았고 立朝에 있어서도 굳세고 엄하여 아첨하지 못하였다. 一家의 재상 洪致中¹⁴⁾은 공이 參訪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였으나 공은 다

始參判公晚得公 甚愛之敎督且勤 公研精經史 髢骭已著聲譽 乙未登上庠 庚子參判公疾篤 公刲臂血進藥 及喪毀幾滅性 鄭都尉載峴素昧 公數致問 輒稱孝哉洪某…公風儀秀雅 性度峻整 事二人終身 慕每當諱辰 哀痛如袒括 謹致齋親視饌 任事婢使亦令沐浴更衣 極其誠虔 家有癘疫 或請廢祀 則曰 未有享先而獲禍者 四時上塚 至老必親時日 輒悲楚竟夕 家人感之 不忍設酒食 事諸姊友篤日往候 起居與人交終身無相負 立朝伉厲不脂韋 洪相致中同宗也 責其不參訪 但遜謝而已 鄰有時宰數 致意相見終不跡其門 嘗論度支長 非人望數三名士 狹游權門物論快之 居家斬斬如朝儀 婦女童幼坐立有常處 族人無行者屢侵公田業 公曰 彼窮而然 輒以券予之 殆前數月季姊病甚 公躬視藥晝夜 既喪哀憤動人 往哭朔尊急中署宿 疾兼劇翌日竟不起 此可以聚公孝友之終始也。

13) 조선 孝宗의 사위로 1648(인조 26)년에 출생하여 1723(경종 3)년에 죽어하였다. 자는 秀遠, 호는 竹軒, 본관은 東萊, 領議政 太和의 아들로 左議政 致和에게 입양되었다. 1656년 효종의 다섯째 딸 淑靜公主와 결혼하여 東平尉가 되었다. 아내가 일찍 죽었으므로 1681년 再娶할 것을 상소, 왕의 허락을 받았으나 臺諫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부터 儀賓은 재취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졌다. 謂恩使로 세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716년 「列聖誌狀」을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생활이 검소하여 모두 왕의 사위인 줄을 몰랐다고 한다. 시호는 翼孝이다. 저서로는 「東平記聞」, 「閑居漫錄」 등이 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847.>

14) 조선의 文臣으로 1667(현종 8)년에 출생하여 1732(영조 8)년에 죽어하였다. 자는 土能, 호는 北谷, 본관은 南陽, 觀察使 得禹의 아들이었다. 1699년 司馬試에 합격, 昌陵參奉·義禁府都事を 지냈으며, 1706년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檢閱을 거쳐 持平·獻納·校理를 역임하고 1712년 北評事로서 청나라 사신 穆克登과 함께 白頭山에 올라 경계를 정했다. 그 후 吏曹正郎·應敎·承旨·大司諫 등을 거쳐 1717년 全羅道觀察使로 나갔다가 1719년 通信使로서 일본에 다녀와서 咸鏡道觀察使·副提學·都承旨·大司成·吏曹參判 등을 지냈다. 1721년 刑曹判書로서 申壬土禍에 洪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되었다. 1724년에 知敦寧府事로 복직, 1725년 刑曹判書·知義禁府事를 역임하고 이듬해 右議政·佐의정을 지냈으며 1729년 領議政이 되었다. 시호는 忠簡이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p.1056 ~1057.>

만 謙辭할 뿐이었다. 당시에 이웃에 여러 재상이 살고 있었으나 致意가 相見하여도 끝내 그 집 문 앞에 발자취를 들여놓지 않았으며, 일찍이 度支部의 首長이었을 때는 신뢰받지 못한 여러 명사들이 權門을 번갈아 드나들어도 世論으로 그것을 명쾌하게 처리하였다.

공은 집에 있을 때도 朝廷의 儀禮와 같이하여 부녀자와 童幼들도 앉고 서는 데에 일정함이 있었다. 族人 중의 오갈 데 없는 이가 여러 차례 공의 田業을 침입하였으나 공은 ‘저 사람이 곤궁하여 그러는 것뿐이다!’고 하면서 문득 文券을 그에게 주기도 하였다. 돌아가시기 전 수개월 동안은 막내 누이의 병이 깊어지자 몸소 주야로 약물을 주관하였으며 마침내 哭을 당하자 그 哀悼가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號哭과 朔奠이 지나치고 급한 중에도 숙직하여 질병이 겹쳐 다음날 마침내 거동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결같이 공의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전모를 보여주는 기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官職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공의 官職에 관해서도 자세히 기록¹⁵⁾되어 있다.

본 지석문에 나타나는 바를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검색에서 나타난 바와 함께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洪廷命의 官職과 生涯

西紀	干支	朝代	日月	年歲	內	容	備	考
1692	壬申	肅宗	18 02 02	01	出生, 字 土欽			誌石文
1715	乙未	肅宗	41	02	上庠			誌石文
1725	乙巳	英祖	元	34	庭試丙科 壯元			誌石文
1727	丁未	英祖	03	36	隸槐院(不就), 摄史入堂			誌石文
1728	戊申	英祖	04 07 10	37	注書			誌石文 · 實錄
1733	癸丑	英祖	09	42	金泉道察訪			誌石文

15)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鎭 所藏, 第2面~第4面.

乙未登上庠…乙巳擢庭試丙科 時當路者 沮闊異己甚力 公奉大夫人 歸鎮川先墓下 丁未隸槐院不就 間攝史入堂后 戊申丁憂 癸丑爲金泉道察訪 纔經大無 罷貢俾復業 流逋悉還 淬弊盡祛 乙卯陞成均典籍 移禮兵曹佐郎正郎 出爲江原都事 丙辰爲司憲府持平 改公洪都事不赴 戊午長馨缺齋惡邑 歲又饑 上命別簡三易望乃授 公馳傳往彈心 賦賦闢境賴無死亡 土俗椎陋昧學 公捐廩課試 縣中子弟居業者 若脫鱗 介衣文章 翌年解歸 兼臺檢湖西田 庚申出平安都事 辛酉罷 冬拜正言 上親臨覆囚不出 特補南海縣 縣民採魚 溺死者四十餘人 公惻然曰 豈忍使民餌魚 募善泅者 悉拯斂葬浦祭以慰之 明年以持平召還 甲子陞掌令 乙丑爲軍資正移獻納 上有事太廟 公方宿齋 又拜掌令 有同僚姻嫌 召不進配高原 後因大臣陳白宥還 丁卯敍復獻納 至戊辰爲司諫執義者.

1735	乙卯	英祖	11	44	成均典籍 禮曹·兵曹의 佐郎·正郎 江原都事	誌石文 誌石文 誌石文
1736	丙辰	英祖	12 06 18	45	持平 除授 持平(罷直) 改公洪都事(不赴)	誌石文·實錄 誌石文·實錄 誌石文
1737	丁巳	英祖	13 01 26	46	持平 04 17 09 24 09 30 11 30 12 27	實錄 實錄 實錄 實錄 實錄 實錄
1738	戊午	英祖	14	47	三易望(乃授)	誌石文
1739	己未	英祖	15	48	解歸 兼臺(檢湖西田)	誌石文 誌石文
1740	庚申	英祖	16 01 11	49	持平 平安都事(辛酉罷)	實錄 誌石文
1741	辛酉	英祖	17 11 12	50	正言 除授 11 20 11 24	誌石文·實錄 實錄 誌石文·實錄
1742	壬戌	英祖	18 01 25	51	持平 召還	誌石文·實錄
1743		英祖	19 03 16		持平	實錄
1744	甲子	英祖	20 08 06	52	掌令 隣差 12 02	誌石文·實錄 實錄
1745	乙丑	英祖	21 02 18	54	獻納 04 14 05 06 09 24 10 05 12 17 12 17 未詳	誌石文·實錄 實錄 誌石文·實錄 實錄 實錄 誌石文·實錄 誌石文·實錄 誌石文
1747	丁卯	英祖	23 08 08	56	獻納 斂復 09 04 11 05 11 23	誌石文·實錄 實錄 實錄 實錄
1748	戊辰	英祖	24 03 29	57	司諫 執義 05 11 07 02	誌石文·實錄 實錄 誌石文
					考終, 享年 57歲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에 나타나는 전기적 기록은 문 중에 전하는 가장 최근에 간행된 1987년의 「南陽洪氏湖隱公派譜」보다도 훨씬 상세하며, 홍정 명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본 지석의 傳記內容이 가장 상세하다고 할 것이다.

6. 生沒과 葬禮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공의 生沒과 葯禮에 관하여도 자세히 기록¹⁶⁾되어 있다.

지석문에 의하면 공은 임신(숙종 18, 1692)년 2월 2일에 출생하여 무진(영조 24, 1748) 7월 2일에 향연 57 세로 皇華坊¹⁷⁾ 舊第에서 考終하였다. 시신은 무진(1748)년에 먼저 先壟에 매장되었으나, 2년이 지난 경진(영조 36, 1760)년에 부친 參判公의 묘 앞의 辛向으로 移葬되었다. 그 배경은 공이 사거한 1년 뒤인 기사(영조 25, 1749)년에 부인 전주 최씨가 졸거하자, 공의 遺命에 따라 부인 최씨와 합장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지석은 移葬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 이상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지석에서 보이는 장례의 유형 가운데 단독장례 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참작한다면, 이 지석은 상대적으로 드문 이상의 사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라 할 수 있다.

7. 後孫의 系譜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공의 후손의 계보에 관하여도 3세까지 자세히 기록¹⁸⁾되어 있다

(1) 公

공의 자는 士欽이며 숙종 임신(1692)년 2월 2일에 출생하여 영조 무진(1748)년 7월 2일에 졸거하였다.

16)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3面.

戊辰爲司諫執義者 夏七月二日 考終於皇華坊舊第 距生年壬申二月二日 壽五十七 �厝于先壟 庚辰移葬
參判公墓前坐 辛之阡 從遺命也.

17) 오늘날의 서울 정동지역이다.

18)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5面~第8面.

配淑人全州崔氏 吏曹判書天健六世孫 父通德郎守溫 淑人生纔十日 母夫人歿 自學語 凡有疾痛顛仆 一未嘗呼母人 問之 輒哽咽不忍對 及長聰曉義理 言動有則 十九歲歸公 事舅姑以敬虔 姦妹以悌 僕隸之賤 不以疾言遽色加之 巫祝不入門 奉祭接賓賜勉 有無未嘗對君子示婁色 生於辛未十月二十八日 歿於己巳八月十四日 享年五十九 始權葬 庚辰祔公墓 生三男三女 男不育 取從父弟廷禹子 楛爲嗣縣監 女長歸先親 姓李諱時德 次適任 郡守 次適金尙義 楉娶李益馨女 有一子三女 子百善娶郡守任瑢女 女長適南履懿 次適權尚煥 次適任希夏 先親有一子一女 子得臣娶趙漢慶女參判 女適金啓淳 正郎公內篤實行 外著方嚴 釋褐三十年 宦途連蹇 秉公議者 至陳章訟屈 公不以得失嬰心 有時榮羸馬過訪 竊交寒族 劇飲銳歡 輸寫靡間視 世之藻飾文辭 梢蠟言貌 同流合汙媚 俗規利者不啻 若燕越其不遇於世宜矣 鳴呼 得臣在襁褓失怙 受公保抱鞠養 如昨日事 今於三十年後 潤淚而誌公幽壤 顧有所不敢 而亦豈公所期也.

부인은 全州人 崔守溫의 딸로 숙종 신미(1691)년에 출생하여 영조 기사(1749)년 8월 14일에 졸거하였는데 향년은 59세였다. 부인 최씨의 祖父는 郡守 ‘嵩齊’, 曾祖父는 佐郎 ‘永世’였고 이조판서 ‘天健’¹⁹⁾의 6세손이었으며 外祖父는 福寧君 有였다. 처음에 임시로 장례하였다가 경진(1760)년에 公의 묘와 합장하였으며, 3남 3녀를 낳았으나 사내아이는 길러내지 못했다. 묘는 實安里의 辛坐에 合窓되어 있으며 表石이 있다.²⁰⁾

부인 최씨는 출생한지 겨우 10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스스로 공부하며 자랐으며, 疾痛이 있어 그것으로 쓰러져도 한번도 어머니를 부르는 경우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으면 차마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인 최씨는 장성하면서 義理가 충명하고 言動에 법칙이 있었다. 19세에 공에게 시집을 와서 시부모에게 경건으로 봉사하고 姉妹를 공경하였으며, 노복 등 미친한 사람에게도 疾言遽色하지 않았다. 巫祝을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으며 奉祭와 接賓과 瞽勉을 있는 듯 없는 듯하였으며 군자를 대접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2) 아들(子)

공의 아들 洪楗의 生父는 ‘廷高’이며 자는 子啓였다. 숙종 갑오(1714)년 3월 17일에 출생하여 全義縣監을 지내고 영조 을사(1785)년 1월 15일에 졸거하였다. 子婦는 參判에 추증된 全州人 李益馨의 딸로 숙종 신묘(1711)년에 출생하여 정조 기해(1779)년 3월 24일에 졸거하였다. 子婦의 조부는 군수 ‘邵’였고 증조부는 府尹 ‘敏樹’였으며 외조부는 密陽人 朴升東이었다. 묘는 實安里의 巳坐에 合窓되어 있다.²¹⁾

공의 아들 洪楗의 生父 ‘廷高’은 자가 土愚이며 숙종 임신(1692)년 6월 26일에 출생하여 영조 기미(1739)년 2월 2일에 졸거하였다. 부인은 昌寧人 摳管 成瓊의 딸로 숙종 임신(1692)년에 출생하여 영조 정해(1767)년 10월 26일에 향년 76세로 졸거하였는데 祖父는 典簿 ‘俊周’이고 曾祖父는 현감 ‘信齋’였으며 외조부는 平壤人 營將 趙淵卿이었다. 묘는 城山의 乾坐에 叢墳되어 있다.²²⁾

19) 조선의 文臣으로 1538(중종 33)년에 출생하여 1617(광해군 9)년에 卒去하였다. 자는 汝而, 호는 汾陰, 본관은 全州, 參議 禧의 아들이었다. 1588년 進士가 되고 이해 謁聖文科 丙科로 급제하여 1593년 居山道察訪을 거쳐 兵曹와 禮曹의 佐郎, 文學·右承旨·都承旨·戶曹參議를 지냈다. 1598()년 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海州牧使·戶曹參判을 역임, 1603년 大司憲으로 同知春秋館事가 되어 임진왜란으로 燒失된 歷代實錄의 重刊에 참여하였다. 그 후 大司諫, 刑曹 와吏曹 의 刑書 등을 지내고 1608년에 柳永慶의 일파로 몰려 削職, 門外黜送되었다가 1611년 복관되었으나 이듬해 金直哉의 謐獄에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1616년에 金悌男의 일파로 몰려 濁陽에 安置, 이듬에 病死하였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p.962 ~963.>

20)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21)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3) 딸(女)

공의 長女는 賛成에 추증된 全州人 李時德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는 郡守 ‘道善’이었다.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判書 ‘得臣’이며 딸은 江陵人 縣令 金啓淳에게 시집을 갔다. 공의 次女는 豊川人 郡守 任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는 承旨 ‘守幹’이었다. 공의 三女는 江陵人 金尚義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는 承旨 ‘始煥’였다.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奎鎮’이며 딸은 平山人 主簿 申錫浩에게 시집을 갔다.²³⁾

(3) 孫子

공의 손자 洪百善은 자가 ‘稚孝’였으며 영조 경신(1740)년 4월 10일에 출생하여 정조 임자(1792)년 11월 15일에 졸거하였다. 孫婦는 豊川人 任瑢의 딸로 영조 기미(1739)년에 출생하여 순조 을축(1805)년 8월 28일에 졸거하였다. 孫婦의 조부는 參判 ‘守迪’이고 증조부는 觀察使 ‘胤元’이었으며, 외조부는 全州人 李國寶였다. 묘는 實安里의 戊坐에 合窆되어 있다.²⁴⁾

(4) 孫女

공의 長孫女는 宜寧人 南履懿에게 시집을 갔으며, 시아버지는 判官 ‘顯老’였다. 아들은 ‘執中’인데 그의 生父는 ‘履懿’였다. 공의 次孫女는 安東人 權尚璽²⁵⁾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는 ‘世栻’이었으며, 아들은 ‘陞’이었다. 공의 三孫女는 豊川人 任希夏에게 시집을 갔으며, 시아버지는 縣監 ‘玆’이었다. 2남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斗常’이고 차남은 ‘翼常’이었으며 딸은 密陽人 郡守 朴道善의 前室 소생인 承旨 ‘長復’에게 시집을 갔다.²⁶⁾

(5) 曾孫子

공의 曾孫子 洪義容은 자가 元方으로 영조 경진(1760)년 5월 24일에 출생하여 순조 신묘(1831)년 6월 7일에 졸거하였다. 묘는 新垈里의 後麓에 있다. 첫째 曾孫婦는 密陽人 修撰 朴

22)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23)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24)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25) <洪廷命 誌石>의 자석문에는 ‘權尚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南陽洪氏湖隱公派譜」에는 ‘權尚煜’으로 기록되어 있다.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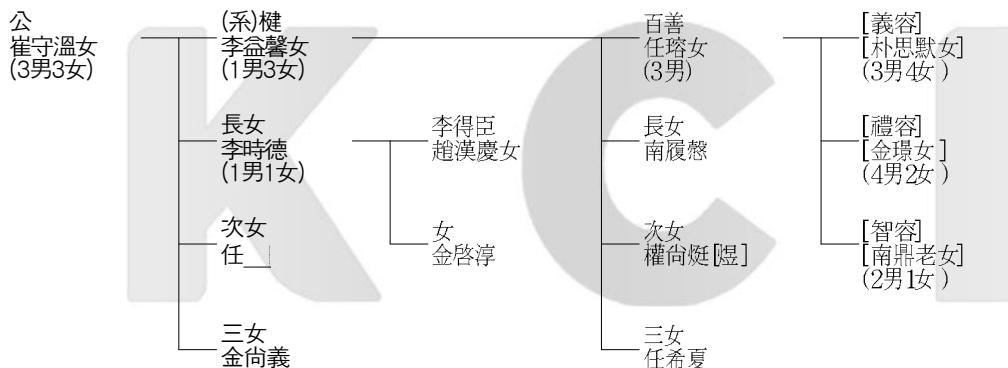
26)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思默의 딸로 영조 경진(1760)년에 출생하여 정조 기유(1789)년 10월 6일에 졸거하였다. 曾孫婦의 祖父는 ‘東毅’였고 曾祖父는 진사 ‘重潤’이었으며, 外祖父는 宜寧人 進士 南鶴春이었다. 1 남 1녀를 낳았으며, 妻는 原州의 地正面 月松里와 七雲里 사이의 西坐에 있다. 둘째 曾孫婦는 坡平人 尹泰榮의 딸로 영조 임진(1772)년에 출생하여 정조 임자(1792)년 12월 22일에 졸거하였는데 無育하였으며 妻는 實安里 花峰의 戊坐에 있다. 셋째 曾孫婦는 連山人 徐熙善의 딸로 영조 신묘(1771)년에 출생하여 순조 갑오(1834)년 11월 6일에 졸거하였는데 妻는 實院里 古寺谷 裡峰의 亥坐에 있다.²⁷⁾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의 기록은 문중에 전하는 가장 최근에 간행된 1987년의 「南陽洪氏湖隱公派譜」과 비교하여도 후손에 관련된 계보에 관하여는 본 지문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지석의 지석문에 나타나는 바와 「南陽洪氏湖隱公派譜」²⁸⁾에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公과 後世의 系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誌石文에 나타난 後世의 系譜



27)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28)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 ~313.

8. 銘文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이득신이 찬술한 명문이 수록²⁹⁾되어 있다.

명문에는 “孝友가 純篤하고 言行이 正直하였으니 君子의 힘줄이었도다 德業 이 컸으나 嗣
絕되고 지위가 낮아 시설이 薄하였으니 天理의 奢이었도다! 올바른 인도와 내유외강은 후세
사람들의 矜式인 것이다! 외손자가 있어 그 자취를 형용하고 손자가 있어 돌에다 새기나니
그 言辭를 어찌 감히 修飾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9. 誌石文의 撰者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嘉善大夫 洪忠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完山李得臣³⁰⁾
撰”으로 공의 손자 完山 李得臣이 지석문을 찬술하였음이 명시³¹⁾되어 있다.

29)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孝友焉純篤 言行焉正直 君子之筋也 德鉅而嗣絕 位卑而施薄 天理之嗇也 可使諭者潔 可使柔者確 後人之式也 有甥狀其蹟 有孫銘諸石 辭不敢飾也.

30) 조선의 文臣으로 1742(영조 18)년에 출생하여 1802(순조 2)년에卒去하였다. 자는 聖良, 謂號는 孝憲, 孝寧大君의 12대손이며 장제부정의 9대손으로 중 左贊成 時德의 아들이다. 어머니는贈 경경부인 南陽 洪氏로 司諫 廷命의 딸이다. 配位는 중 정부인 豊陽 趙氏로 漢慶의 딸이다. 1766년 庭試文科丙科로 급제하고 1774년 登俊試에 甲科로 급제하였다. 1768년 弘文館校理에 이어 副校理·正言·修撰 등을 거쳐 1773년 承政院 承旨·水原府使를 역임하고 다음 해 大司諫이 되었다. 그가 올린 상소문이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領議政 徐命善의 탄핵으로 1781년 유배되었다가 4년 뒤 春川府使가 되고 다음 해 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이 때 尚州牧使가 승려를 동원하여 華陽洞에 있는 萬東廟를 수리함으로써 지방 유생들로부터 관찰 監司로서 수수방관하였다는 추궁을 받았다. 1788년 大司憲이 되고 다음 해에 希川郡守로 전임되었는데 치적을 쌓아 暗行御史의 보고에 따라 正祖로부터 말을 하사받았다. 1793년 刑曹判書가 되었을 때 수감 중 병에 걸려 고생하는 전국의 죄수에게 약을 주어 치료해 주었다. 2년 뒤 行府使職으로 임금의 모후 惠慶宮을 추존하는 경사가 있자 加資의 恩典을 받았다. 그 뒤 知義禁府事·大司憲·吏曹判書·兵曹判書를 역임하고 1797년에 全羅道觀察使가 되어 호남에 4만석을 풀어 깊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며 이 지방의 사치가 심하여 이를 엄단할 것을 상소했다. 2년 뒤 漢城府判尹이 되고 1801년 正祖의 陵을 조성하는 山陵提調로서 공이 인정되어 加資되었다. 그 뒤 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兵曹判書 재임 중卒去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덕치 龜坐이다.

31)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外孫 嘉善大夫 洪忠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完山 李得臣 撰

10. 誌石文의 書者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晉陽 姜世晃³²⁾ 書”라 하여 豹庵 姜世晃이 지석문을 서사하였음이 명시³³⁾되어 있다.

본 지석의 지석문에 나타나는 筆體와 강세황의 자필로 저술된 「豹庵遺稿」에 나타나는 강세황의 楷書體와 대조³⁴⁾해서도 본 지석의 書者가 강세황이 틀림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의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현재 홍정명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지석이 지니는 傳記資料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할 것이다.

V. 誌石의 製作者와 製作時期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지석의 제작자에 관하여 명시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공의 아들 洪健과 공의 손자 洪百善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의 아들 洪健이 지석의 제작에 관여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자세하지 않으나, 공의 손자 洪百善은 제작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외손자가 있어 그 자취를 형용하고 손자가 있어 돌에다 새기나니 그 言辭를 어찌 감히 修飾할 수 있으리오!”³⁵⁾라고 한 銘文의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32) 조선의 書畫家·文臣으로 1712(숙종 38)년에 출생하여 1791(정조 15)년에 卒去하였다. 자는 光之 호는 豹庵, 본관은 晉州, 判中樞府事 鏡의 아들이었다. 1772년 61세 때에 비로소 英陵參奉이 되고 이듬해 司圃署別提를 거쳐 1776년에 漢城府判官으로 耆老科에 장원, 1778년 兵曹參知로 文臣庭試에 장원, 漢城府右尹·南陽府使·漢城府判尹·戶曹와 兵曹의 參判을 거쳐 耆老所에 들어갔다. 書畫에 뛰어나 1784년 千秋副使로 북경에 갔을 때 그의 서화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귀국 후 正憲大夫에 올랐다. 글씨는 王羲之·王獻之·米芾 등의 서체를 본받았으며 篆書·隸書를 비롯한 각 체에 모두 신묘했고 특히 山水·四君子 등에 뛰어났으며, 시는 陸游를 본받았으나 독자적 풍격을 갖추고 있었다. 시호는 憲靖이다. 저서로는 「豹庵集」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蘭竹圖>, <墨竹圖>, <驢背覓句圖>, <山水圖>, <飛瀑圖>, <松竹牡丹圖>, <溪山初晴圖>, <風雪過橋圖>, <蓮花圖> 등의 그림이 있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95. p.7.>
- 33)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晉陽 姜世晃 書.
- 34) 姜世晃, 豹庵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pp.63 ~516.
- 35)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有甥狀其蹟 有孫銘諸石 辭不敢飾也.

한편, 지석문에는 지석문의 찬자와 서자는 명시³⁶⁾되어 있으나 정확한 제작의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석문의 撰者와 書者 및 銘文을 중심으로 지석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그것을 찬술한 당시의 完山 李得臣의 품계와 관직이 “嘉善大夫 洪忠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로 기록³⁷⁾되어 있다. 이득신이 가선대부에 오른 것은 정조 8(1784)년 9월 17일³⁸⁾이었으며, 홍충도 관찰사로 제수된 것은 정조 9(1785)년 3월 28일³⁹⁾이었다. 그 후 정조 9(1785)년 7월 13일에 “洪忠監司 李得臣을 推考하라”⁴⁰⁾는 왕명이 실록의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지석문의 찬술은 이득신이 홍충도 관찰사로 제수된 1785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지석의 지석문에는 그것을 서사한 당시의 晉陽 姜世晃의 품계와 관직도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기록⁴¹⁾되어 있다. 강세황이 오위 도총부 도총관에 제수된 것은 정조 7년 5월 9일⁴²⁾의 일이었고 한성부 판윤에 제수된 것은 정조 7(1783)년 9월 1일⁴³⁾과 정조 13(1789)년 12월 4일⁴⁴⁾이었다. 그가 資憲大夫에 오른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종2품인 嘉善大夫에 오른 것이 정조 2(1778)년의 일⁴⁵⁾이었고 종2품인 嘉義大夫에 오른 것이 정조 6(1782)년의 일⁴⁶⁾이었으며 정2품인 正憲大夫에 오른 것이 정조 14(1790)년의 일⁴⁷⁾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資憲大夫로 오른 것은 그가 처음으로 정2품직에 제수되었던 무렵일 것이다. 그는 정조 7(1783)년에 병조참판과 한성판윤

36)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外孫 嘉善大夫 洪忠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完山 李得臣 撰

37)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外孫 嘉善大夫 洪忠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完山 李得臣 撰

38)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8年 9月 己巳條.

施賞典…李得臣陞嘉善.

39)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9年 3月 丁丑條.
以李得臣爲洪忠道觀察使

40)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9年 7月 庚申條.
命洪忠監司李得臣推考.

41)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第8面.

資憲大夫 漢城府判尹 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晉陽 姜世晃 書.

42)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7年 5月 己亥條.
特陞姜世晃爲都摠府都摠管.

43)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7年 9月 己丑條.
以姜世晃爲漢城府判尹.

44)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13年 12月 乙卯條.
以姜世晃爲漢城府判尹.

45) 姜世晃, 豹菴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pp.19 ~45.

46) 姜世晃, 豹菴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pp.19 ~45.

47) 姜世晃, 豹菴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pp.19 ~45.

등⁴⁸⁾을 지냈는데, 병조참판은 종 2품직이며 중추부총관과 한성판윤은 정 2품직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지석문의 서사는 강세황이 資憲大夫에 오른 1783년부터 正憲大夫에 오른 1790년 사이의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공의 아들 洪鍵에 대한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다. 대한 「南陽洪氏湖隱公派譜」에 “숙종 갑오(1714)년 3월 17일에 출생하여 全義縣監을 지내고 영조 을사(1785)년 1월 15일에 즐거하였다”고 기록⁴⁹⁾하고 있을 뿐이며, 실록에서도 정조 3(1779)년 3월 27일에 “湖西暗行御史 朴祐源이 復命을 하고 나서 書啓를 올려 全義縣監 洪鍵 등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情狀에 대하여 論劾하였다”는 기사⁵⁰⁾가 있을 뿐이다.

또한, 공의 손자 洪百善에 대한 자세한 전기도 알 수 없고, 「南陽洪氏湖隱公派譜」에 “영조 경신(1740)년 4월 10일에 출생하여 정조 임자(1792)년 11월 15일에 즐거하였다”고 기록⁵¹⁾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중심으로 <洪廷命 誌石>의 제작자와 제작의 시기는 공의 아들 洪鍵과 손자 洪百善의 주도 아래 정조 9(1785)년 무렵에 외손자 李得臣이 지석문을 撰述하고 정조 7(1783)년부터 정조 14(1790)년 사이에 豹庵 姜世晃이 지석문을 書寫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VI. 結論

이상에서 현전하는 <洪廷命 誌石>의 현상과 지석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구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誌石은 일반적으로 本貫, 謂,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가족관계, 묘의 위치와 坐向 등이 기록되므로 同時代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금석학적 자료이다.
- (2)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은 홍정명(1692~1748)의 외손인 문신 李得臣(1742~1802)에 의하여 撰述되고 당대의 저명한 화가요, 서예가였던 豹庵 姜世晃(1712~1791)에 의하여 書寫된 것이다.

48) 姜世晃, 豹庵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pp.19~45.

49)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313.

50)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正祖 3年 3月 辛亥條.

湖西暗行御史 朴祐源復命 進書啓論…全義縣監 洪鍵…不職狀…罷職.

51)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中卷. pp.292~313.

(3) <洪廷命 誌石>은 현재 忠北 鎮川郡 廣惠院面 實院里에 거주하는 홍정명의 10대손인 洪範錫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南陽 洪氏 宗中의 齋室 마루바닥 아래의 땅속에서 발견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4) <洪廷命 誌石>의 지석판은 총 4매 8면이며, 재질은 精選 된 烏石 이다. 지석은 한번의 판 작업과 여러 번의 물갈이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석판의 크기는 길이 27.8~28.2 cm 너비 20.3~20.7cm, 두께 2.0~3.6cm 내외이다. 지석문은 지석판의 양면에 楷書體의 10行 17字로 陰 刻되어 있으며, 전체 분량은 1,335자이다.

(5)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의 내용은 標題, 姓과 謂, 先祖의 系譜, 性品과 行蹟, 官職, 生沒과 葬禮, 後孫의 系譜, 銘文, 誌石文의 撰者, 誌石文의 書者 등 10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6) <洪廷命 誌石>의 제작자와 제작시기는 공의 아들 洪捷과 손자 洪百善의 주도 아래 정조 9(1785)년 무렵에 외손자 李得臣이 지석문을 撰述하고 정조 7(1783년)부터 정조 14(1790)년 사이에 豹庵 姜世晃이 지석문을 書寫하였던 것이다.

(7) <洪廷命 誌石>의 지석문은 현재 홍정명의 文集이나 遺稿 및 그의 傳記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傳記資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것이다.



李得臣 撰, 姜世晃 書. 洪廷命 誌石. 洪範錫 所藏.

南陽洪氏湖隱公派宗中會 編. 南陽洪氏湖隱公派譜. 3冊. 大田, 湖南文化社, 1987.

姜世晃. 豹庵遺稿. 影印本.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典資料編纂室, 1977.

安輝濬 等編. 豹庵 姜世晃의 詩書畫評. 韓國書藝史特別展 23. 서울, 우일출판사, 2004.

변영섭. 豹庵 姜世晃 繪畫研究. 서울, 一志社, 1988.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2.

鄭濟奎, 金貞熙. 崇禎 甲午年銘 李齊說 誌石. 清州, 忠清大學博物館, 2002.